

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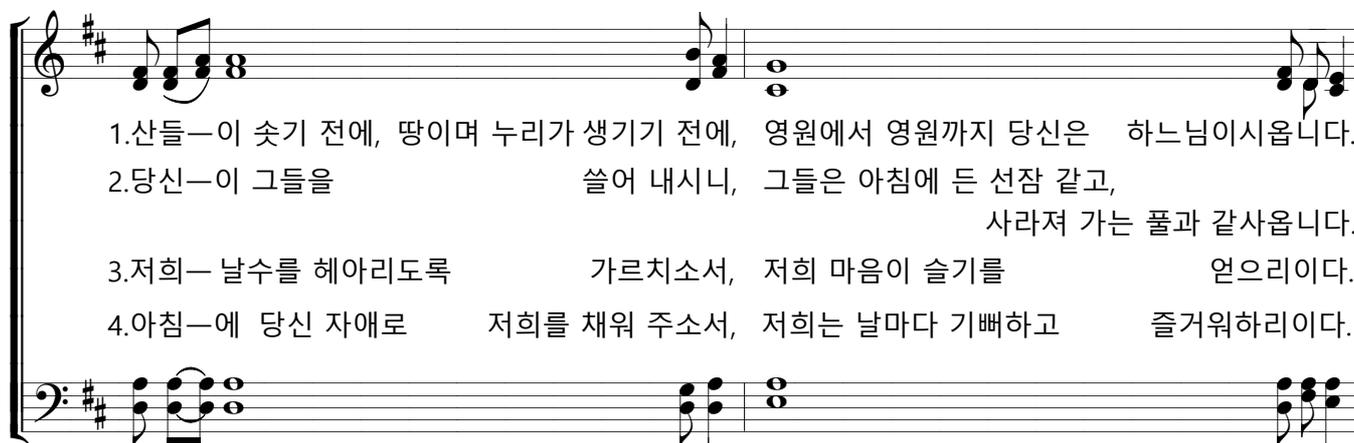
박 재 광 마티아

시편 90(89), 2와 4, 5-6, 12-13, 14와 16 (후렴17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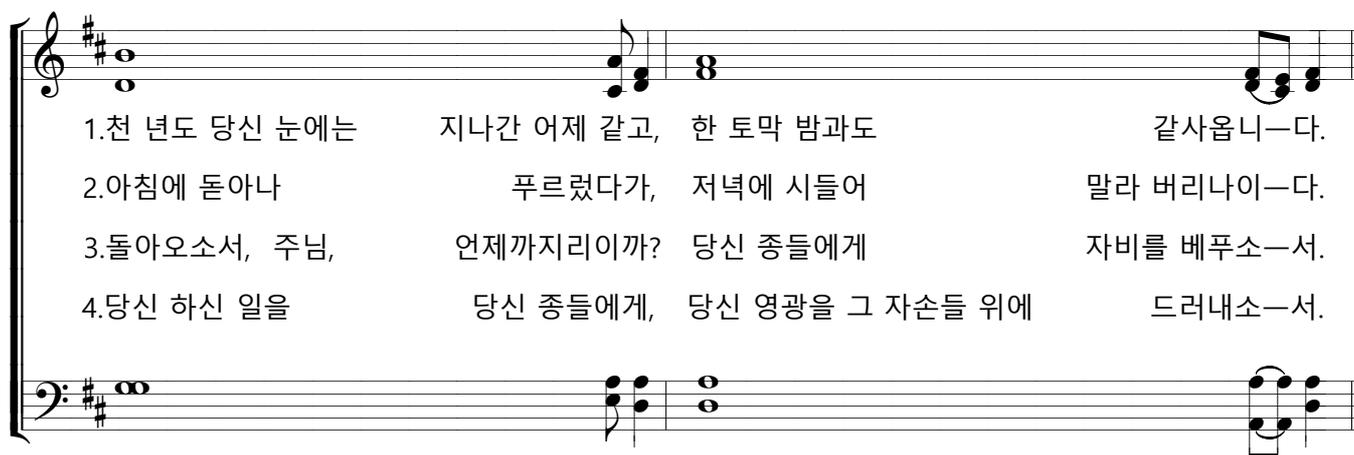
17. 1. 28.



후렴.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.



1.산들—이 솟기 전에,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,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.
2.당신—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,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,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.
3.저희—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,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.
4.아침—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,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.



1.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,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—다.
2.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,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—다.
3.돌아오소서, 주님, 언제까지리이까?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—서.
4.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,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리내소—서.